

## ‘분골쇄신’ !! 원유가 현실화 투쟁에 앞장 설 것

- 청년분과위원회 긴급 임원회의 개최결과(6.4) -

**한** 국낙농유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이명환)는 6월 4일(수)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6.17일 낙농유우인 총궐기 대회 연대활동을 통해 원유가 현실화 투쟁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낙농유우인 총궐기 대회 및 집행부 농성에 적극 동참하여 활동기로 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항의방문, 집회 등을 전개키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하였다. 또한 투쟁에 임하는 청년낙농인의 각오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회의직후, 유가공협회를 항의방문하고 붕괴위기에 있는 낙농산업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원유가 현실화가 시급하나, 농가의 고통을 외면한 채 유업체가 시간 끌기에 나선 것에 대해 항의하고, 원유가 현실화에 적극 임해줄 것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



□ 성명서 □

##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원유가 현실화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전국 낙농육우인 총궐기대회를 임하는 청년 낙농인의 각오 -

- ▷ 원유가 현실화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붕괴 위기에 있는 낙농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해서 낙농가뿐만 아니라 정부, 유업체 모두의 당면과제다. 하지만 시간만 지체될 뿐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농가의 고통을 남의 고통쯤으로만 치부한 채 시간 끌기에만 나선 것은 아닌지 인내심에 한계마저 든다.
- ▷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대한민국 낙농을 위해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을 믿었기 때문이다. 허나 기대 자체가 무리였다. 월간 낙농에서 유가공협회 김시현 전무 인터뷰에서 드러난 그릇된 상황인식과 ‘시기상조’를 주장하며 끝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의 유업체의 무성의한 태도나 나만 살겠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 인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 정부 또한 목장경영 회생을 위해 근본 대책하나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사태를 유업체와 농가가 해결할 문제로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할 따름이다. 낙농의 특성상 원유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오는 6.17일 ‘전국 낙농육우인 총궐기대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전국 낙농인들의 절규와 하나 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 이제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우리 청년 낙농인들은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원유가 현실화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6.17일 전국 낙농육우인 총궐기 대회에서 성난 농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와 유업체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2008. 6. 4(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